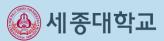
한국현대사의이해

Introduction to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

11주차. 5·18 민주화운동 2강. 집단적 가치의 구성 과정과 의미 구조





- 1. 5·18 민주화운동의 집단적 가치는 무엇이고, 어떻게 구성되었는가?
- 2. 그 운동이 추구한 의미 구조는 무엇인가?



- 1. 5·18 민주화운동이 추구한 가치 및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.
- 2. 5·18 민주화운동의 가치 및 의미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에 기반을 두어 그것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.



제2강 집단적 가치의 구성 과정과 의미 구조





생각해 볼 문제



- 운동의 가치 및 의미는 무엇인가?
- 나는 지금까지 5·18 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어떻게 평가했는가?

- ☑ 항쟁 참여자들의 인식
 - ➡ 당시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지배 이데올로기인 반공반북주의를 극복하지 못했음
 - ➡ 이런 인식은 광주항쟁 해석에서 일반적임
 - ➡ 실제로 항쟁 기간 동안 시민군 측에서 간첩으로 오인한 일부 참여자를 계엄군에 넘김



- ☑ 반공반북주의의 표출
 - ➡ 항쟁 초기부터 두드러짐
 - → 계엄군의 행동에 시민들이 전두환과 신군부, 진압군을 '공산당', '인민군'에 비유
 - ➡ 더 잔혹한 존재로 묘사
 - ➡ "죄 없는 학생들을 총칼로 찔러 죽이고 몽둥이로 두들겨 트럭으로 실어가며, 부녀자를 발가벗겨 총칼로 찌르는 놈들이 이 누구란 말입니까? 이들이 공산당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?"



- ☑ 반공반북주의의 질적 전환
 - ➡ 계엄군의 조준사격 개시, 대규모의 총상자가 발생한 5월 21일에 배포된 유인물
 - ➡ 정권과 진압군을 '공산당', '인민군'보다 더 잔혹한 존재로 인식



- ☑ 폭력 가해자에 대한 표상
 - ➡ 남한의 권력 집단과 '공산당'은 공통적으로 인민들에게 국가폭력을 가하는 존재로 표상
 - ➡ 이는 한국인들의 집단적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는 역사적 체험 환기
 - → 그 체험의 원형은 한국전쟁 한국전쟁의 참상은 반공 이데올로기, 우익애국주의, 정치적 독재 등을 정당화하는데 동원됐던 역사
 - ⇒ 광주 시민들의 의미 세계 내에서 당시의 국가권력을 장악한 정치세력은 '공산당'보다 더 잔혹한 존재로 자리매김
 - ➡ 전두환 세력과 공산당을 동일시함



☑ 반공반북주의의 균열

- ➡ 광주항쟁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반공반북주의는 결정적인 균열 초래
- ⇒ '반공반북을 위해' 현존하는 지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
- ➡ 폭력 그 자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국군을 공산당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임
- ➡ "미친 이리떼는 미친 이리떼이니 그렇다고 합시다. 항차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라는 임무를 주어 우리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무장해 놓은 군인이 싸우라는 공산당은 놔두고 주민을 향해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?"
- ➡ 이런 균열은 지배 담론의 붕괴, 새로운 정체성의 혁명
- → 그 혁명의 이념적 핵심이 민주-공화주의



- ☑ 항쟁에 대한 민족주의/민중주의 해석의 한계
 - ➡ 반공주의와 같이 항쟁의 집단적 가치로 핵심적이지 않았음
 - ➡ 집단적 이념과 가치로서 독립적인 위상을 갖지 못했음
 - ➡ 이 특성은 〈민주화여!〉라는 시에 집약적으로 나타남
 - : "민주화여! 영원한 우리 민족의 소망이여! … 날아라 민중아! 민주의 벌판을/뛰어라 역사여! 희망의 내일을 …"
 - → 여기서 민주·민족·민중이라는, 1960년대 이래 민주화 운동의 핵심 상징 포함
 - → 70행에 달하는 이 시에서 '민주'는 11회 등장
 - → 대립적 개념 쌍(민주/독재, 민주/폭군, 민주/폭력, 민주/광기, 민주/굴종 등)을 통해 전체 텍스트의 의미를 조직하고 있음
 - →'민족'과 '민중'은 1회 등장



- ◆ 민족주의
 - ☑ 광주항쟁에서 민족이라는 언어는 빈번히 등장
 - ☑ 전체 담론구성에서 그 의미론적 중요성은 핵심적
 - ☑ 민족주의의 정치 원리/가치 지향
 - ➡ 민족주의는 단지 공유된 감정이나 의식이 아닌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 및 상징들에 의해 영감을 받은 적극적 운동(Smith)
 - ➡ Smith의 민족주의 핵심교리 및 민족주의는,
 - : 자민족의 자율성, 통일성, 정체성, 진정성, 영토성, 존엄성, 연속성, 운명 공동성
 - : 민족주의는 타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위의 가치를 추구하는 운동 세종대학교

◆ 민족주의

☑ 광주항쟁 텍스트에서 이런 정치 원리나 가치 지향이 등장하는 부분은 거의 찾을 수 없음

☑ 즉,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는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지 않았음



◆ 민중주의

☑ 광주항쟁의 주요 참여자 집단이 노동자, 농민, 자영업자 등 기층 민중

✓ 그럼에도 민중적·계급적 이념과 가치 지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

☑ 매우 드물게 그런 지향이 발견되기도 하는데, 이 경우에도 대단히 소극적



- ◆ 민주주의
 - ☑ 정치이념과 자기정체성의 핵심
 - ☑ 절차적 민주주의 요구
 - → 광주항쟁 주체들이 지향했던 민주주의가 김대중 석방, 자유선거, 민선정부 수립 등의 절차적 민주화만 의미하지는 않음
 - ➡ 절차적 민주주의는 광주항쟁의 중요한 요구사항
 - ➡ 최규하 대통령 퇴임, 전두환 처벌, 민주 과도정부 구성, 계엄 해제, 휴교령 철폐, 언론의 공정성 등을 요구



- ♥ 민주주의
 - ☑ 헌정주의 이념 요구
 - ➡ 소극적인 선거의 자유,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가 전부였던 것은 아님
 - ➡ 헌정주의 이념을 강하게 표현 :
 "이 나라의 국정을 독점 농단하는 정치적 폭력배들을 오늘 당장 몰아내고 민주헌정을 조속히 실현하라!"
 - → 권력의 사유화 · 독점화 반대, 정부가 보장해야 할 것으로 자유, 권리 명시



◆ 민주주의

☑ 민주주의 이념 표현

➡ 항쟁 후반기로 가면 주권과 권력의 궁극적 기초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이념 표현

"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정치를 해나가는 것입니다.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소유인 것입니다."

- ⇒ 광주항쟁에서 표현된 민주주의의 가치에 핵심적인 측면은 '민주'가 자기정체성의 중핵이 되었다는 점
- ⇒ 항쟁 첫날인 5월 19일부터 '민주'라는 가치는 시민들의 정치적 자의식의 핵심 부각
- ➡ 이는 단지 스스로를 민주적 행위자로 인식했다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



- ◆ 공화주의
 - ☑ 주권재민과 공화국의 이상
 - ☑ 공화주의 이념의 핵심은;
 - 1 자의적 권력의 부재를 뜻하는 비-지배(non-domination)
 - 2 평등한 자유와 존엄을 향유하는 시민 공동체
 - 3 정치공동체 내에서 시민들의 상호의존과 호혜
 - 4 이를 가능케 하는 '좋은 정부'
 - 5 그것을 가능케 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주체성과 참여



- ◆ 공화주의
 - ☑ 역사적 의미에서의 공화주의
 - ➡ 하나의 통일적 사상 체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님
 - ➡ 역사적으로 귀족주의, 민주주의, 자유주의, 사회주의 등 다양한 이념과 가치에 결합된 '여러 공화주의'가 있음



- ◆ 공화주의
 - ☑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
 - ➡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것
 - ➡ 이는 한편으로 시티즌십 (citizenship)의 범위와, 다른 한편으론 자의적 지배를 제어하는 방식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음
 - ➡ 정치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시티즌십이 동등하게 부여되지 않거나, 자의적 권력에 대한 통제권이 인민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, 그 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님
 - ⇒ '인민의 자기 통치'라는 민주주의 이념은 그 자체로 자의적 권력을 통제한다는 이념을 내포하지 않음



◆ 공화주의

- ☑ 항쟁의 집단적 가치
 -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된 집단적 가치와 제도적 상상 표현
 - ➡ 그 핵심은 주권재민의 이념과 그에 상응하는 정부형태의 구상

◆ 공화주의

- ☑ 핵심적 가치로서의 민주주의
 - → 국가에 의무를 위임하는 국민은 국가신민(國家臣民)이 아니라 국가시민(國家市民), 즉 정치공동체의 주권자
 - ➡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 및 이상은;
 - : 주권자의 '자기 통치' (self-rule of demos)
 - : '내 나라'라는 정치공동체에의 애착과 헌신
 - : 공화국 정체(政體)의 보전
 - : 주권자 시민들의 보편적 자유를 보장해 줄 '좋은 정부'의 이상



◆ 공화주의

- ☑ 국가 권력 및 시민적 자유
 - ➡ 군대와 정부의 경제적 원천 역시 국민

 "납입한 피와 땀(세금)으로 페퍼포그·최루탄 및 총기를 수입하여 국민의
 배를 가르고 가슴에 총을 쏘아 죽일 수 있단 말인가."
 - → 시민들은 공적 국가의 이념이 선한 통치자의 군림에 의해 실현되길 기다리지 않았음
 - "거세되지 않은 자유 시민임을 자부하는 우리들"은 "어떠한 폭력적 탄압으로 억압한다고 해서 눌러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았다."
 - → 시민적 자유는 자의적 권력과 싸워 쟁취하는 정치적 주체성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자의식 표현



- ◆ 공화주의
 - ☑ 공화국 이상의 제도적 구상
 - ➡ 계엄군이 일시 철수, '해방 광주' 시기가 시작되는 5월 22일 이후
 - ▶ 시민적 자치 조직과 기능적 분업 체계 조직그것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, 항쟁 주체들이 추진했던 일종의 '공화국' 기획의 산물
 - ➡ 무기 보유 및 사용 규제, 내부 치안, 직장 일상 업무 회복 등을 자체 조직
 - ➡ 시민의 국가, 시민의 정치, 시민공동체의 호혜에 터한 공화국의 이상
 - ➡ 정치 민주화
 - → 경제·치안·방위 기능 구비
 - ➡ 시민적 자율과 참여에 토대를 둔 일종의 자치공화국 구성 기획



- ◆ 공화주의
 - ☑ 대항-국가(counter-state)의 역설
 - ➡ 모든 공화국의 이념이 형식적으로는 국가 안의 국가, '대항-국가'의 속성
 - ➡ 그럼에도 그것은 대항-국가의 기획이 아님
 - ➡ 이는 현존하는 나라공동체에 대한 충성이 이들의 집단적 정체성의 중핵에 놓여 있었기 때문
 - → 자치공화국의 존재이유는 "민주화투쟁은 하루 이틀에 끝날 수 없"으므로 "지구전에 대비"해야 하기 때문
 - → 즉, 독재국가 한국 안의 또 하나의 시민 국가가 아니라, 한국을 민주화하기 위한 '참호'로 이해



학습정리